

연중 제23주일

제 1 독서 : 이사 35,4-7a

제 2 독서 : 야고 2,1-5

복 음 : 마르 7,31-37

순정이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병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이사 35,5-6).

강론

“멀쩡한 귀머거리”

이 재 후 신부 / 평화동 천주교회

오늘 복음에서는 귀머은 병어리를 낫게 하여 듣고 말하도록 해주신 것을 전해주고 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에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신다. 주께서 사람의 몸에 건강을, 영혼에 구원을 가져 오신 것은 그의 창조를 되풀이 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병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보다 더 딱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귀머거리라는 인간 전체를 이제 예수께서는 “열려라” 하고 구원하신다. 우리는 귀머고 병어리된 때가 없는가 하고 생각해본다. 열린 귀를 가지고도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와 태도를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말할 때 방어하려는 자세, 미리 대답을 준비하거나 편견이나 선입감을 가지고 들을 때, 우월감을 가질 때, 열등감에 자신을 열지 않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등 이러한 태도의 자세를 가지면 다른 이의 말은 물론이며 하느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한다. 우리는 병어리도 귀머거리도 아니며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옳은 말만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남을 비방한다든가 남을 해치는 말을 해서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집회 28, 18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고 했으니 지혜롭고 순박한 말이 아쉽다.

예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신 이야기는 넓은 의미로 마음의 귀를 생각하게 한다. 하느님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멀쩡한 귀머거리가 세상의 많은 비극의 원인이 된다. 자신 속에 완전히 밀폐되어 진리의 목소리, 구원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이기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이를 배격하고 하느님까지 몰아내어 자신을 하느님 대신 절대화하고서 죄가 없다 하니 가관이 다. 죽음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린 인간에게 예수께서는 “열려라” 명령하신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야겠다.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너나 할것없이 껌뻑만 파낼게 아니라 마음의 막힌 귀를 뚫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어두운 귀가 열리고 막혔던 혀가 풀려 진리를 알아듣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알찬 가을이면 좋겠다.

소리

“반동과 희망과...”

소련이 온 세계의 협조 속에 그야말로 성모 마리아의 파티마 말씀처럼 복을 받고 있다.

요즘의 그쪽 상황은 북음적으로 분별할 때 참으로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절감케 하고 있다.

군대는 절대로 인민을 짓밟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신념과 그 실천, 권력을 권 자들의 깨끗한 권력행사, 인민의 바라는 바가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애쓰는 입법부 등이 우리에게는 전혀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만 같다.

사회주의가 ‘현실’주의라기보다는 이상주의라서 그랬을까? 그들의 이저런 행동의지는 아주 잘 훈련된 이성의 꽃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나친 찬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겪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면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최근에 심각한 무력감이 뒤덮여 있는데 그 원인이며 처방이 난감한 오리무중에 놓여 있다.

과소비 사치풍조를 잡아보겠다는 운동도 다분히 의혜적일 뿐 이 발전 제일주의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어떤 수로 경건하게 정신차리도록 하겠는가?

더 큰 문제는 집권자와 그 부류의 무지몽매와 몰역사(반동성), 그리고 반지성적인 엄청난 힘(집단화된 권력)을 ‘소수’에 불과한 이성집단이자 역사개혁의지를 실천하려는 쪽이 당해대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과 그 때문에 생기는 자포자기의 냉소적 역사관이 아닐까 한다.

분명 역사가 인간을 도구로 한 하느님의 작품이라면 가 능성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텐데, 한치 앞을 모르겠는 우리의 비참은 또 얼마나 심한가! **☞**

순정이 산책



“순교 200주년을 맞고 있는 윤지충과 권상연”

한국천주교회의 첫순교자들인 윤지충과 권상연의 죄목은 조선의 전통의례(傳統儀禮)인 유교식 상제례(喪祭禮)를 폐지한 일이었다. 그후 천주교 신도라면 으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로 지탄받아왔고,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미신행위라 해서 조상제사를 금지시켜왔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조상제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미신적인 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를 석연치 않게 만드는 것은 어찌 조상께 바치는 제사를 미신행위로 매도할 수 있고, 그러한 교회의 명령에 함박 죽어 맹종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래서 윤지충이 조상제례를 폐지하고 천주교식 의례를 선택한 일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윤지충이 살고 있던 시대는 의례(儀禮)가 근본정신을 잃고 지나치게 형식을 치중할 뿐 아니라, 맹목적인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폐습이 컸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요원들은 국민생활의 발전보다 의례 논쟁에 국력을 탕진하고 있어서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높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천하에 죄인이 될 일이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지충은 천주교 신앙을 통해 현실개혁을 추진코자 한 것이다. 윤지충이 모친상 때 유교식 제례를 폐지하고 형식보다 효도의 근본을 강조하는 천주교의 지시를 따르자 조야(朝野)에서 그를 지탄하는 소리가 높았고 여론에 밀린 좌의정 체계공은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조 임금은 이 일을 기회로 하여 당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의 처형을 막고자 배교토록 회유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가 처형되자 아꼈사 내가 윤고산(尹孤山)의 후손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 하고 자탄했다. 그는 이렇게 처형되었다. 정부는 전라감사에게 분부하여 여러 백성이 명확히 보이는데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참수하여 그 머리를 5일 동안 매달아 놓으라 했다. 그리하여 11월 13일(양력 12월 8일) 오후 3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들의 처형장이 후인(後人)의 구전대로 지금의 전동 성당 부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하다.

평생 주자(朱子)를 흠모하며 살아왔던 그의 행동은 현실개혁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그의 결단은 근본적으로 하늘을 죽기까지 사랑한 신앙에서 표출된 것이었다. 윤지충은 관상하는 신앙인이었고 유교의 효(孝) 사상을 천주께 바친 최초의 신앙인이었다. 그는 천주교를 알고 3년 동안 관상한 끝에 세례를 받았고, 그후에



사람들은 그가 누구에게도 전교한 바 없다고 말할 만큼 관상생활에 몰두했다(사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여러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법정에서 천주교 교리의 간간이 되는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막힘없이 진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진술 내용에서도 그러하다. 그의 진술서는 정부 앞에서 최초로 교리를 호교(護敎)한 호교서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완전히 소화한 교리였다. 그의 법정 진술서는 신도들에게 전해져서 영적 독서로 읽혀졌고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가 처형된 후에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기적을 보였고, 신도들은 그의 머리털과 형구의 목편을 성해(聖骸)처럼 몸에 간직했다. 또한 1798년 그의 순교 행적과 기적이 문서로 런던에 전해지자 각국 말로 번역되어 서구 천주교회에 큰 감명을 주었고, 이러한 문헌은 지금도 로마 포교성성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에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서서일까? 국산신앙(國產信仰)이어서서일까? 입에 떠넣어주듯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서일까? 모를 일이다.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김진소 신부

각종 인쇄, 명함, 코팅, 스티카
판촉물, 개업기념품 일체
(제철이, 성냥, 볼펜 등)
대 일 인쇄소
조대일(미카엘)
백춘자(레지나)
이리시 남중동1가 35-6(남파, 옆)
☎ 855-9636

순 꼬리로만 고향
‘개 시’
전주역전 한양모델하우스 뒷편
서정필(요셉)
김형식(마태오)
별미회관 ☎ 72-5801

주부사원모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김금주(벨라도)
(주)계공사/
종로회원 남전주 지사
☎ 88-8027 야간71-5827

정성을 다하는 조립식의 선구자
경일 조립식 건축
재무부령 254호 허가업체
본사73-1611 FAX75-0161 출장소85-1023
김종진(스테 파노) 김해선(레지미오)
김종선(그레고리오) 김영애(루 비 나)

잡 관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우리 밀은 기후조건과 생육의 특성상 재배지역이 광범위하며, 토양 생태계 보존의 효과와 농약용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인지 우리 선조들은 1,500년 동안 이 땅에서 밀을 재배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밀이 수입되어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 현재 거의 100%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된 밀은 연평균 334만톤에 달하는데 그 밀에는 22개의 농약과 레두란이 사용된다. 특히 이 레두란은 잔류성이 얼마나 강한지 80년을 야적시킨 상태에서도 별레가 붙지 않는단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준비위원회는 9월 말까지 발기인 1천명, 오는 '94년까지 1백만명의 회원을 모집, 국민운동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94년까지 국수공장, 밀제분공장, 빵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이 재원은 발기인과 회원들로부터 1구좌 1만원씩 10구좌 이상씩을 신청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산밀은 수입밀보다 월등하게 값이 비싸지만 영농기술의 개발과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면 가격차를 3배 이내로 줄일 수 있기에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주름살 깊은 농촌에 희망을, 공해식탁을 생명의 밥상으로 바꾸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교 구 소 식

※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연락처-가톨릭 농민회(85-4205)

1. 축! 건진: 9월15일 오전 10시30분 평화동 성당.
 2. 교구 법원: 9월9일(월) 오전 10시.
 3. 교구 사목협의회: 9월10일(화) 오후 7시30분.
 4. 재무 평의회: 9월13일(금) 오후2시.
 5. 전주교구 어린이성가 경연대회: 10월13일 오후1시 해성학교 율호관.
 6. 추석 술개재 활동 위령미사: 9월22일 12시 연도 및 미사.
 7. 가톨릭 사진동우회 정기 사진촬영회: 9월15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출발, 장소-진안·장수 방면 공소, 남원 운봉목장.
 8. 여성 제36차 꾸르실료: 10월10일-13일, 9월10일까지 추천 마감.
 9.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9월10일(화) 오전10시30분, 대상-미혼자·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교구청 별관4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10. **감사합니다** 치명자산 성지개발 현금: 권요안나 자매 50만원.
 11. 한문교실 개강: 9월26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11시 가톨릭센터, 여성연합회(84-5290)
- ※ 축! 영명: 8일(성모이세) 이상철 신부님, 13일(성요한 크리스토토모) 오성기 신부님.

- **성소모임** 동정성모회: 9월15일 오후2시 동양아파트 E동 403호 (0652)72-5266.
 살레시오수녀회: 9월15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내 평화신문사 (062)27-1017.
 전교가르멜수녀회: 9월15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일터(1) 복사물·인쇄물의 양면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이의 앞뒷면을 다 사용함으로써 절약의 습관을 기르고, 산을 푸르게 하는 나무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종이 절약을 생활화합시다.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우리편두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설환(즈가리아)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옆)
 ☎ 85-8848

결혼·약혼·파티복·남복
한복고려주단

전광원(마르코)
 김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20-4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요심이 (944) 김병오

물가는 날마다 오르고
과소비는 하고...

고급외국물품을
수입하여 사치를 하고...

외국에나가곰발바다요리
먹고, 싹쓸이소평을해도
단속을 앓고있으니...

노대통령님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고 있습니까?

새성전 은인 구할

- 송학동 새성전에 필요한 미품 은인을 찾습니다
1. 제대복화(프레스코화): 500만원
 2. 제 단(도자기): 200만원
 3. 참호지화(창문): 200만원
 4. 감실(도자기): 100만원
 5. 강론대(도자기): 100만원
 6. 기타

송학동 성당

문의 (0658) 841-9713 (사무실)
 51-5340 (사제관)

전교가르멜수녀회
성소모임

대상: 판상과 활동 안에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미혼 여성
 때: 매월 셋째주일 오후2시
 장소: 서신동 전주교회 내 수녀원
 ☎ (0652)74-9262

양재·한복·휴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인드레이)
 동부시정유·민정당시영
 ☎ 86-2715
 * 냉난방 완비

제일 정육점

한우 전문점
 조만기(요아킴)
 정순이(안나)
 주공3단지 복합상가 내
 ☎ 83-034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목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1.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2. 장우회 창립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오늘 후2시
 4. 부녀회 상임위원회: 11일 어머니미사 후
 5. 재속 협의회: 14일 후2시
 6. 가정방문: 아중리, 금상리-11일.
 7. 추석 위령미사: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8. 벽걸이 시계 기증: 중노2가 16반 조분님(세노비아) 감사합니다.
 9. 날마다 그날의 성경귀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10. 금주청소: 신우1,2반 차주청소: 동진1,2반
- ☐ 지난주 봉헌금: 1,014,020원 ☐ 교무금: 1,05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초등부 체육대회: 오늘 성심학교 운동장
 2.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오늘 오후2시 4.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5. 안녀회: 12일 오전10시 6. 여성분과회: 14일 오전10시 7. 성모회: 15일 공식미사 후 8. 생활성가 발표: 15일 공식미사 중(청년회)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선영들을 위해 정성어린 미사봉헌을 21일 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성당청소(14일): 사랑하운 어머니Pr 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전례: 해설·김영수 독서·김원덕씨부부 봉헌·황유현씨가족.
차주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김병화씨부부 봉헌·양현숙씨가족
- ☐ 지난주 봉헌금: 531,300원 ☐ 교무금: 713,4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 추석합동위령미사: 22일 애타게 접수하세요.
1. 봉성체: 14일(토)저녁미사 후 2. 장년회: 14일(토)저녁미사 후 3. 성가집,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서읽기: II 교린토 1장~6장 5. 청소년봉사: 구세주의 모친Pr 6. 예비자 교리개강: 공식미사 후 회의실 7. 성체감복: 12일(목)미사 후
 8. 초등부 체육대회: 오늘 성심학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9.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김봉준 ②김금자 봉헌·서정식, 안동기씨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남현준 ②강경자 봉헌·한동옥, 남창덕씨부부
- ☐ 지난주 봉헌금: 242,850원 ☐ 교무금: 234,2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용

- * 오늘은 연중제23주일! 9월은 순교자성월!
1. 회의: ①프란치스코3회-오늘오후2시 ②성심회-9월13일(금) 오후2시 ③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울드레아-9월11일(수)저녁미사 후 ②전례부-9월19일후8시
 3. 알림: ①봉성체-다음주 수요일 ②추석합동위령미사에물-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③청년성가대원모집-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에 성가연습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④초등부체육대회-9월8일(오늘)오전10시~후4시(성심여교)
- ☐ 지난주 봉헌금: 517,500원 ☐ 교무금: 36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본당울드레아: 공식미사 후 3교리실
 2. 주간중 미사변경 안내: 10일(화)오전6시 11일(수)미사없음
 3. 남전주지구 초등부 주일학교 체육대회: 오늘 오전9시-오후4시(성심학교, 회비500원, 도시락, 미사도구, 모자준비)
 4. 본당의날 행사: 29일(10시미사후): 각 구역별 나눔찬전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5. 공동체 묵상회(M.B.W)24일(화): 27일(금)오후8시
 6. 청소년사: 신촌주택
- ☐ 지난주 봉헌금: 600,590원 ☐ 교무금: 908,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 현금비람.
1. 성미리아꾸리아 성지순례: 오늘. 장소: 황새바위-갈매동.
 2. 남전주지구 어린이 주일학교 체육대회: 오늘 성심학교운동장. 일인당회비: 일천원. * 3시미사 없음.
 3. 집중교리: 9일~13일, 저녁8시, 소강당.
 4. 연세식: 14일(토)오후4시(학생미사결합)-당일유아세례 없음.
 5. 돈보스교회: 11일(수)저녁7시30분
 6. 자모회: 다음주 오전10시<회장및 간부전송>
 7.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8. 청년연합회 월례회: 다음주 저녁미사후. 대청소: 다음주 오후4시(청년)
- ☐ 지난주 봉헌금: 1,675,39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택

- * 경 본당의날 및 건전성사 축 15일 전10시30분, 전전자참여
1. 추석합동 위령미사 접수: 21일까지. 선영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2. L.M 단원 선서식: 11일, 여성-어머니미사, 남성-아버지미사
 3. 소년, 소년 가장들기 추천: 오늘까지. (구역내 신자, 미신자)
 4. 성령 기도회: 10일 후7시30분 (매주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5.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김분자(살비아), 서기-박성자(안나)
 6. 제대회 월례미사: 13일 후3시, 회원가임 회장과 환영합니다.
 7. 축! 개입미사 9일 전11시 하순옥, 구이 대덕 10시30분출발.
 8. 가정미사: 9일 김완철(신일), 10일 박삼차(우성) 후8시
 9. 회의: 청년회-오늘 후8시, 자모회-어머니미사 후
- * M.E 35차 제모일: 8일 후3시 설탕3총
- ☐ 지난주 봉헌금: 762,320원 ☐ 교무금: 727,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성모회·청년회: 주일미사 후
2. 반모임: 10일(화)오전10시반-화산2(B). 오후2시반-평화·성원 오후8시반-삼정. 11일(수)오전10시반-금화·송원. 오후2시반-화산2(A)
3. 자모회: 다음주일미사 후
4. 성지순례: 9월29일(일). 장소(미정). 회비-만원. 사무실에 접수 해주십시오.
5. 울드레아 준비모임: 다음주일미사 후
6. 청소년사: 자비의 모후Pr
7. 금주전례: 김옥희 독서·봉헌: 김강. 정길.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강봉자. 권남진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황수석

- *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순교절전 합양합니다.
1. 축 영세: 오늘오후4시 미사중에 2. 본당의날: 다음주 9:30분 미사 후 11시미사 후 *외곽 교우를 초대합니다. 나눔과 사랑과 사람의 분당 공동체의 날이 되도록 적극 참여합니다.
*영명을 맞이하는 본당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92년 부활반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①일 09:30 ②목 오후7:30 ③금요일 오전10:40 예비자를 적극 인도합니다.
 4. 모임안내: ①울드레아-오늘11시미사 후 ②글라라회-수요일 오전10:30 ③피미씨울-28일 오후3시 5. 성서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6. 유아영세: 29일(일)오후5시. 7. 환자 봉성체: 화요일 오후2시. 본당여사무원채용 기타(사무실신문의)
- ☐ 지난주 봉헌금: 1,264,880원 ☐ 교무금: 1,568,000원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남전주 주일학생체육대회: 오늘 성심학교
 2. 울드레아: 공식미사 후 3. 성모, 자모회: 13(금)10시 미사 후 4. 공소미사: 13(금)2시 독배, 저녁 이서 5. 베소라부부성서반: 매주수요일 저녁미사 후 6. 추수감사미사 및 추석합동위령미사 7. 첫영성체교리: 16일부터시작. 8. 제일,광진,장승1.3반 부부신자 환영식-16(월)7:30 9. 축, 혼인성사: 14(토)12:30 신망-강신동(정하상마오) 신부-이정운(앤다)
차주모임-사목회 신축현금 봉헌액-150,000원
금주전례: 해설-강전상 독서①박윤업 ②백인자 기도①표근중 ②김영자
차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김동기 ②이군자 기도①박동옥 ②이정순
- ☐ 지난주 봉헌금: 993,460원 ☐ 교무금: 1,463,000원